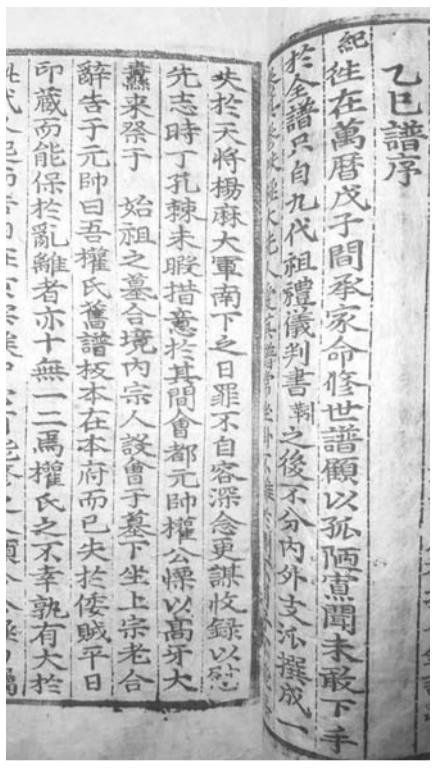


<을사보>에 얹힌 충장공 권율 도원수와 용만 권기 선생

족보는 풍속과 교화를 일으키는 선조들의 문명의 비전



지난 7월 16일 안동시청 대동관에서 제31회 경북역사인물학술발표회가 <조선 읍지 영가지와 용만 권기>라는 주제로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그 이후 권기 선생은 8년 동안 하나하나 일일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1605년 드디어 을사보를 완성한다.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안동권문의 역사는 그렇게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편찬 작업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권기 선생은 그만 실명(失明)을 하고 말았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온 몸을 바쳐 사력을 다해 실명하면서까지 탄생시킨 을사보는 현재 서문만 존재한다. 아래는 을사보 서문이다.

그 후에 도사(都事) 권진(權縉)이 지필(紙筆)을 살 자금을 지급하여 주었고, 종숙(宗叔) 쌈봉(權衡)과 태사묘(泰宰廟) 유사(優施)가 헌금(獻金)을 더해 편찬에 기여했다. 특히 '안동권씨 족보 <을사보(乙巳譜)>의 편찬'을 다루면서 서문에는 용만(龍巒) 권기(權紀, 1546~1624) 선생이 어떻게 을사보를 만들게 되었는지, 충장공(忠肅公, 1537~1599) 도원수와 안동 종친 100여 명과 회의하는 내용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족보를 편찬하는 이유도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안동권씨라는 한 가문의 역사를 기록하는 차원을 떠나 '족보가 진실로 밝지 못하면 사람의 도가 멀해져 금수에 가깝지 않은 자가 드물 것이다. 그렇다면 족보가 풍속과 교화에 관계됨이 크다'고 밝히고 있다. 유학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은 인간이 자자 잘못하면 짐승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점인데, 족보가 풍속과 교화를 통해 이를 구제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러니까 한국 역사상 안동권문이 족보를 가장 먼저 만든 이유는 그저 한 가문의 역사를 기록하는 단순한 목적이 아니고 인간이 짐승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풍속과 교화를 이끌기 위한 거대한 인문정신의 발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 선조들은 문명적 비전과 포부가 남달랐다.

서문에 의하면 권기 선생은 1588년 무렵 부친의 명에 따라 세보(世譜)를 편찬했는데 전체 족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손도 대지 못하고, 다만 자신의 9대조 예의판서

(禮儀判書) 인(勤) 이후에 내외의 지파를 구분하지 않고 방대한 양의 책을 만들었다고 술회하고 있다. 부친은 그 세보를 어찌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앉거나 누워서나들 곁에 두고 보았다고 한다. 그런데 임진왜란 때 명나라 장수 이여송 부대가 남하하던 날 분실하여 다시 수록할 기회를 염두하고 있었다. 마침 권율 도원수가 시조 묘소에 제사를 지내려 왔다가 경내의 족친들을 모아 묘지 아래에서 회의를 하던 중 어느 종친 어르신께서 '옛 족보의 서판을 이미 왜적에게 잃어버렸으니 우리 권씨의 불행이 이보다 크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종종 원로가 대답하기를 "권기라면 가능합니다"라고 하니, 원수께서 기뻐하시면서 나와 술잔을 잡고 서로 권하면서 말하기를 "전일의 수록한 것은 비록 전쟁에 분실되어 선군(君)께서 늘 유념하신 것을 저버릴 수는 없을 것이니, 모름지기 다시 수보함에 힘써서 선령을 위로하고 문종의 바람에 부응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기(紀)는 사양하였으나 허락의 명을 얻지 못하였다.

그 후에 도사(都事) 권진(權縉)이 지필(紙筆)을 살 자금을 지급하여 주었고, 종숙(宗叔) 쌈봉(權衡)과 태사묘(泰宰廟) 유사(優施)가 헌금(獻金)을 더해 편찬에 기여했다. 특히 '안동권씨 족보 <을사보(乙巳譜)>의 편찬'을 다루면서 서문에는 용만(龍巒) 권기(權紀, 1546~1624) 선생이 어떻게 을사보를 만들게 되었는지, 충장공(忠肅公, 1537~1599) 도원수와 안동 종친 100여 명과 회의하는 내용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안동권문의 역사는 그렇게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편찬 작업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권기 선생은 그만 실명(失明)을 하고 말았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온 몸을 바쳐 사력을 다해 실명하면서까지 탄생시킨 을사보는 현재 서문만 존재한다. 아래는 을사보 서문이다.

그 이후에 도사(都事) 권진(權縉)이 지필(紙筆)을 살 자금을 지급하여 주었고, 종숙(宗叔) 쌈봉(權衡)과 태사묘(泰宰廟) 유사(優施)가 헌금(獻金)을 더해 편찬에 기여했다. 특히 '안동권씨 족보 <을사보(乙巳譜)>의 편찬'을 다루면서 서문에는 용만(龍巒) 권기(權紀, 1546~1624) 선생이 어떻게 을사보를 만들게 되었는지, 충장공(忠肅公, 1537~1599) 도원수와 안동 종친 100여 명과 회의하는 내용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안동권문의 역사는 그렇게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편찬 작업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권기 선생은 그만 실명(失明)을 하고 말았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온 몸을 바쳐 사력을 다해 실명하면서까지 탄생시킨 을사보는 현재 서문만 존재한다. 아래는 을사보 서문이다.

그 후에 도사(都事) 권진(權縉)이 지필(紙筆)을 살 자금을 지급하여 주었고, 종숙(宗叔) 쌈봉(權衡)과 태사묘(泰宰廟) 유사(優施)가 헌금(獻金)을 더해 편찬에 기여했다. 특히 '안동권씨 족보 <을사보(乙巳譜)>의 편찬'을 다루면서 서문에는 용만(龍巒) 권기(權紀, 1546~1624) 선생이 어떻게 을사보를 만들게 되었는지, 충장공(忠肅公, 1537~1599) 도원수와 안동 종친 100여 명과 회의하는 내용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안동권문의 역사는 그렇게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편찬 작업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권기 선생은 그만 실명(失明)을 하고 말았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온 몸을 바쳐 사력을 다해 실명하면서까지 탄생시킨 을사보는 현재 서문만 존재한다. 아래는 을사보 서문이다.

그 이후에 도사(都事) 권진(權縉)이 지필(紙筆)을 살 자금을 지급하여 주었고, 종숙(宗叔) 쌈봉(權衡)과 태사묘(泰宰廟) 유사(優施)가 헌금(獻金)을 더해 편찬에 기여했다. 특히 '안동권씨 족보 <을사보(乙巳譜)>의 편찬'을 다루면서 서문에는 용만(龍巒) 권기(權紀, 1546~1624) 선생이 어떻게 을사보를 만들게 되었는지, 충장공(忠肅公, 1537~1599) 도원수와 안동 종친 100여 명과 회의하는 내용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안동권문의 역사는 그렇게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편찬 작업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권기 선생은 그만 실명(失明)을 하고 말았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온 몸을 바쳐 사력을 다해 실명하면서까지 탄생시킨 을사보는 현재 서문만 존재한다. 아래는 을사보 서문이다.

그 후에 도사(都事) 권진(權縉)이 지필(紙筆)을 살 자금을 지급하여 주었고, 종숙(宗叔) 쌈봉(權衡)과 태사묘(泰宰廟) 유사(優施)가 헌금(獻金)을 더해 편찬에 기여했다. 특히 '안동권씨 족보 <을사보(乙巳譜)>의 편찬'을 다루면서 서문에는 용만(龍巒) 권기(權紀, 1546~1624) 선생이 어떻게 을사보를 만들게 되었는지, 충장공(忠肅公, 1537~1599) 도원수와 안동 종친 100여 명과 회의하는 내용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안동권문의 역사는 그렇게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편찬 작업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권기 선생은 그만 실명(失明)을 하고 말았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온 몸을 바쳐 사력을 다해 실명하면서까지 탄생시킨 을사보는 현재 서문만 존재한다. 아래는 을사보 서문이다.

그 후에 도사(都事) 권진(權縉)이 지필(紙筆)을 살 자금을 지급하여 주었고, 종숙(宗叔) 쌈봉(權衡)과 태사묘(泰宰廟) 유사(優施)가 헌금(獻金)을 더해 편찬에 기여했다. 특히 '안동권씨 족보 <을사보(乙巳譜)>의 편찬'을 다루면서 서문에는 용만(龍巒) 권기(權紀, 1546~1624) 선생이 어떻게 을사보를 만들게 되었는지, 충장공(忠肅公, 1537~1599) 도원수와 안동 종친 100여 명과 회의하는 내용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안동권문의 역사는 그렇게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편찬 작업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권기 선생은 그만 실명(失明)을 하고 말았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온 몸을 바쳐 사력을 다해 실명하면서까지 탄생시킨 을사보는 현재 서문만 존재한다. 아래는 을사보 서문이다.

그 후에 도사(都事) 권진(權縉)이 지필(紙筆)을 살 자금을 지급하여 주었고, 종숙(宗叔) 쌈봉(權衡)과 태사묘(泰宰廟) 유사(優施)가 헌금(獻金)을 더해 편찬에 기여했다. 특히 '안동권씨 족보 <을사보(乙巳譜)>의 편찬'을 다루면서 서문에는 용만(龍巒) 권기(權紀, 1546~1624) 선생이 어떻게 을사보를 만들게 되었는지, 충장공(忠肅公, 1537~1599) 도원수와 안동 종친 100여 명과 회의하는 내용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안동권문의 역사는 그렇게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편찬 작업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권기 선생은 그만 실명(失明)을 하고 말았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온 몸을 바쳐 사력을 다해 실명하면서까지 탄생시킨 을사보는 현재 서문만 존재한다. 아래는 을사보 서문이다.

그 후에 도사(都事) 권진(權縉)이 지필(紙筆)을 살 자금을 지급하여 주었고, 종숙(宗叔) 쌈봉(權衡)과 태사묘(泰宰廟) 유사(優施)가 헌금(獻金)을 더해 편찬에 기여했다. 특히 '안동권씨 족보 <을사보(乙巳譜)>의 편찬'을 다루면서 서문에는 용만(龍巒) 권기(權紀, 1546~1624) 선생이 어떻게 을사보를 만들게 되었는지, 충장공(忠肅公, 1537~1599) 도원수와 안동 종친 100여 명과 회의하는 내용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안동권문의 역사는 그렇게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편찬 작업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권기 선생은 그만 실명(失明)을 하고 말았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온 몸을 바쳐 사력을 다해 실명하면서까지 탄생시킨 을사보는 현재 서문만 존재한다. 아래는 을사보 서문이다.

그 후에 도사(都事) 권진(權縉)이 지필(紙筆)을 살 자금을 지급하여 주었고, 종숙(宗叔) 쌈봉(權衡)과 태사묘(泰宰廟) 유사(優施)가 헌금(獻金)을 더해 편찬에 기여했다. 특히 '안동권씨 족보 <을사보(乙巳譜)>의 편찬'을 다루면서 서문에는 용만(龍巒) 권기(權紀, 1546~1624) 선생이 어떻게 을사보를 만들게 되었는지, 충장공(忠肅公, 1537~1599) 도원수와 안동 종친 100여 명과 회의하는 내용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안동권문의 역사는 그렇게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편찬 작업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권기 선생은 그만 실명(失明)을 하고 말았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온 몸을 바쳐 사력을 다해 실명하면서까지 탄생시킨 을사보는 현재 서문만 존재한다. 아래는 을사보 서문이다.

그 후에 도사(都事) 권진(權縉)이 지필(紙筆)을 살 자금을 지급하여 주었고, 종숙(宗叔) 쌈봉(權衡)과 태사묘(泰宰廟) 유사(優施)가 헌금(獻金)을 더해 편찬에 기여했다. 특히 '안동권씨 족보 <을사보(乙巳譜)>의 편찬'을 다루면서 서문에는 용만(龍巒) 권기(權紀, 1546~1624) 선생이 어떻게 을사보를 만들게 되었는지, 충장공(忠肅公, 1537~1599) 도원수와 안동 종친 100여 명과 회의하는 내용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안동권문의 역사는 그렇게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편찬 작업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권기 선생은 그만 실명(失明)을 하고 말았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온 몸을 바쳐 사력을 다해 실명하면서까지 탄생시킨 을사보는 현재 서문만 존재한다. 아래는 을사보 서문이다.

그 후에 도사(都事) 권진(權縉)이 지필(紙筆)을 살 자금을 지급하여 주었고, 종숙(宗叔) 쌈봉(權衡)과 태사묘(泰宰廟) 유사(優施)가 헌금(獻金)을 더해 편찬에 기여했다. 특히 '안동권씨 족보 <을사보(乙巳譜)>의 편찬'을 다루면서 서문에는 용만(龍巒) 권기(權紀, 1546~1624) 선생이 어떻게 을사보를 만들게 되었는지, 충장공(忠肅公, 1537~1599) 도원수와 안동 종친 100여 명과 회의하는 내용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안동권문의 역사는 그렇게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편찬 작업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권기 선생은 그만 실명(失明)을 하고 말았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온 몸을 바쳐 사력을 다해 실명하면서까지 탄생시킨 을사보는 현재 서문만 존재한다. 아래는 을사보 서문이다.

그 후에 도사(都事) 권진(權縉)이 지필(紙筆)을 살 자금을 지급하여 주었고, 종숙(宗叔) 쌈봉(權衡)과 태사묘(泰宰廟) 유사(優施)가 헌금(獻金)을 더해 편찬에 기여했다. 특히 '안동권씨 족보 <을사보(乙巳譜)>의 편찬'을 다루면서 서문에는 용만(龍巒) 권기(權紀, 1546~1624) 선생이 어떻게 을사보를 만들게 되었는지, 충장공(忠肅公, 1537~1599) 도원수와 안동 종친 100여 명과 회의하는 내용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안동권문의 역사는 그렇게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편찬 작업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권기 선생은 그만 실명(失明)을 하고 말았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온 몸을 바쳐 사력을 다해 실명하면서까지 탄생시킨 을사보는 현재 서문만 존재한다. 아래는 을사보 서문이다.

그 후에 도사(都事) 권진(權縉)이 지필(紙筆)을 살 자금을 지급하여 주었고, 종숙(宗叔) 쌈봉(權衡)과 태사묘(泰宰廟) 유사(優施)가 헌금(獻金)을 더해 편찬에 기여했다. 특히 '안동권씨 족보 <을사보(乙巳譜)>의 편찬'을 다루면서 서문에는 용만(龍巒) 권기(權紀, 1546~1624) 선생이 어떻게 을사보를 만들게 되었는지, 충장공(忠肅公, 1537~1599) 도원수와 안동 종친 100여 명과 회의하는 내용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안동권문의 역사는 그렇게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편찬 작업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권기 선생은 그만 실명(失明)을 하고 말았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온 몸을 바쳐 사력을 다해 실명하면서까지 탄생시킨 을사보는 현재 서문만 존재한다. 아래는 을사보 서문이다.

그 후에 도사(都事) 권진(權縉)이 지필(紙筆)을 살 자금을 지급하여 주었고, 종숙(宗叔) 쌈봉(權衡)과 태사묘(泰宰廟) 유사(優施)가 헌금(獻金)을 더해 편찬에 기여했다. 특히 '안동권씨 족보 <을사보(乙巳譜)>의 편찬'을 다루면서 서문에는 용만(龍巒) 권기(權紀, 1546~1624) 선생이 어떻게 을사보를 만들게 되었는지, 충장공(忠肅公, 1537~1599) 도원수와 안동 종친 100여 명과 회의하는 내용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안동권문의 역사는 그렇게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편찬 작업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권기 선생은 그만 실명(失明)을 하고 말았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온 몸을 바쳐 사력을 다해 실명하면서까지 탄생시킨 을사보는 현재 서문만 존재한다. 아래는 을사보 서문이다.

그 후에 도사(都事) 권진(權縉)이 지필(紙筆)을 살 자금을 지급하여 주었고, 종숙(宗叔) 쌈봉(權衡)과 태사묘(泰宰廟) 유사(優施)가 헌금(獻金)을 더해 편찬에 기여했다. 특히 '안동권씨 족보 <을사보(乙巳譜)>의 편찬'을 다루면서 서문에는 용만(龍巒) 권기(權紀, 1546~1624) 선생이 어떻게 을사보를 만들게 되었는지, 충장공(忠肅公, 1537~1599) 도원수와 안동 종친 100여 명과 회의하는 내용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안동권문의 역사는 그렇게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편찬 작업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권기 선생은 그만 실명(失明)을 하고 말았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온 몸을 바쳐 사력을 다해 실명하면서까지 탄생시킨 을사보는 현재 서문만 존재한다. 아래는 을사보 서문이다.

그 후에 도사(都事) 권진(權縉)이 지필(紙筆)을 살 자금을 지급하여 주었고, 종숙(宗叔) 쌈봉(權衡)과 태사묘(泰宰廟) 유사(優施)가 헌금(獻金)을 더해 편찬에 기여했다. 특히 '안동권씨 족보 <을사보(乙巳譜)>의 편찬'을 다루면서 서문에는 용만(龍巒) 권기(權紀, 1546~1624) 선생이 어떻게 을사보를 만들게 되었는지, 충장공(忠肅公, 1537~1599) 도원수와 안동 종친 100여 명과 회의하는 내용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안동권문의 역사는 그렇게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편찬 작업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권기 선생은 그만 실명(失明)을 하고 말았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온 몸을 바쳐 사력을 다해 실명하면서까지 탄생시킨 을사보는 현재 서문만 존재한다. 아래는 을사보 서문이다.

그 후에 도사(都事) 권진(權縉)이 지필(紙筆)을 살 자금을 지급하여 주었고, 종숙(宗叔) 쌈봉(權衡)과 태사묘(泰宰廟) 유사(優施)가 헌금(獻金)을 더해 편찬에 기여했다. 특히 '안동권씨 족보 <을사보(乙巳譜)>의 편찬'을 다루면서 서문에는 용만(龍巒) 권기(權紀, 1546~1624) 선생이 어떻게 을사보를 만들게 되었는지, 충장공(忠肅公, 1537~1599) 도원수와 안동 종친 100여 명과 회의하는 내용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안동권문의 역사는 그렇게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편찬 작업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권기 선생은 그만 실명(失明)을 하고 말았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온 몸을 바쳐 사력을 다해 실명하면서까지 탄생시킨 을사보는 현재 서문만 존재한다. 아래는 을사보 서문이다.

그 후에 도사(都事) 권진(權縉)이 지필(紙筆)을 살 자금을 지급하여 주었고, 종숙(宗叔) 쌈봉(權衡)과 태사묘(泰宰廟) 유사(優施)가 헌금(獻金)을 더해 편찬에 기여했다. 특히 '안동권씨 족보 <을사보(乙巳譜)>의 편찬'을 다루면서 서문에는 용만(龍巒) 권기(權紀, 1546~1624) 선생이 어떻게 을사보를 만들게 되었는지, 충장공(忠肅公, 1537~1599) 도원수와 안동 종친 10